

코로나19로 '안방 라이브' 펼친 팝스타들

자선모금 행사 '리빙룸 콘서트 포 아메리카' 성료 엘튼 존·머라이어 캐리·빌리 아일리시 등 총출동

팝스타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등 대용 인력들을 돕기 위한 '안방 라이브'에 총출동했다.

미국 최대 라디오 방송사인 아이하트미디어(iHeartMedia)와 미국 폭스(FOX) 채널은 29일(현지시간) 엘튼 존과 머라이어 캐리, 알리샤 키스, 백스트리트 보이즈 등 최고 팝스타들이 참여한 '리빙룸 콘서트 포 아메리카'(LIVING ROOM CONCERT FOR AMERICA)를 열었다.

폭스 채널로 1시간가량 생중계된 이 행사를 통해 팝스타들은 각자 집에서 릴레이 라이브 공연과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밴드 푸 파이더스의 데이브 그롤은 '마이 히어로'를, 그린 데이의 빌리 조 암스트롱은 '블러바드 오브 로큰 드림스' 어쿠스틱 버전을 들려줬다. 팝 신성 빌리 아일리시도 오빠 피니즈 오코넬과 함께 집 소파에서 히트곡 '베드 가이'를 선보였다.

레이디 가가와 리조는 영상으로 응원 메시지를 전했고, 데미 로바토, 헤이(H.E.R.), 손 멘데스와 카밀라 카베요, 샘 스미스도 릴레이 라이브에 동참했다.

머라이어 캐리가 원격으로 연결된 연주자, 코러스들과 함께 '올웨이즈 비 마이 베이비'(Always Be My Baby)를 부르며 대미를 장식했다.

시청자들의 성금은 '피딩 아메리카'(Feeding America)와 '퍼스트

리스폰더스 칠드런스 파운데이션'(First Responders Children's Foundation)이라는 자선 단체에 기부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콘서트와 페스티벌 등 전 세계적으로 공연업계가 한파를 맞으면서 가수들은 온라인 콘서트로 활발하게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그들 방탄소년단(BTS)도 '홈 라이브'에 동참한다. 방탄소년단은 30



코로나19 대용 인력을 돕기 위한 자선모금 행사인 '리빙룸 콘서트 포 아메리카'의 사회자로 나선 엘튼 존. 사진은 '엔더독 크레디지 나잇' 투어에서 공연했던 엘튼 존의 모습. 연합뉴스

일(미 현지시간, 한국시간 31일) 방영되는 미국 CBS '더 레이트 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의 '홈페스트'(HOMEFEST) 행사에 출연할 예정이다.

방탄소년단 외에도 빌리 아일리시, R&B 가수 존 레전드, 이탈리아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 영국 팝스타 두아 리파 등이 참여해 집에서 라이브를 선보인다. 연합뉴스

한국영화 공백에 다국적 영화 속속 개봉

일본·유럽·남미 등 출신 다양 일본영화 점유율 3.0%로 경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한국 영화 관객 점유율이 10%대로 떨어졌다.

반면 이런 공백을 틈타 일본과 유럽, 남미 등 다양한 국제 영화가 속속 개봉됐거나 개봉을 앞뒀다.

30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달 1~29일 한국 영화 관객 점유율은 16.9%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43.5%)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런 날 개봉이 예정된 신작들 개봉이 출몰이 연기된 탓이다.

관객 점유율만 보면 미국 영화가 71.3%로 가장 높았고 한국 영화(16.9%)에 이어 영국 영화(4.8%) 순이었다.

특히 작년 3월 0.9%에 불과했던 일본 영화 점유율이 올해 3월 3.0%로 경증 된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여파로 신작 공백이 일면서 일본 영화가 속속 다시 개봉한 것이다. 일본 영화는 지난해 7월 한일갈등 여파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면서 국내 스크린에서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번 달에만 일본 대배우 키키 키린 유작 '모리의 정원'을 비롯해 동명 할리우드 영화를 리메이크한 '첫키스만 50번째', 공포 영화 '온다', 애니메이션 '바이올렛 에버가든-영원과 자동 수기 인형'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등 무려 50편이 개봉했다.

다음 달에도 멜로영화 '사랑이 될까'와 '펠리칸 베이커리', '선생님과 길고양이' 등이 선보인다.

일본 영화뿐만 아니라 그동안 스크린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다양한 국적의 작품도 한국 관객을 찾는다.

4월에만 대만 영화 '아웃사이더'를 포함한 '행복의 단추를 채우는 완벽한 방법'(영국) '스크림: 더 파이널'(영국), '신과 나: 100일간의 거래'(태국), '업문4: 더 파이널'(홍콩), '리멤버: 기억의 살인자'(캐나다), '마약 기생충'(콜롬비아), '시체들의 새벽: 컨테이션'(불가리아), '핀란드 메탈밴드'(핀란드), '라라 갈'(호주) 등이 개봉을 준비 중이다.

영화계 관계자는 "그동안 개봉 기회조차 갖지 못한 다양한 국적 영화가 내걸리고 있다"면서 "스크린이 다양해지고 했지만, 하루 전체 관객수가 2만~3만명에 불과해 흥행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BS 아나운서 출신 손미나(왼쪽) 작가가 스페인의 인기 프로그램 '국민의 거울'에 화상 연결로 출연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능력 알리는 '민간 외교관' 방송인들

코로나19 대응체계 인터뷰 알베르토 몬디·손미나 등

국내 방송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식 방역 체계의 우수성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방송가에 따르면 알베르토 몬디는 최근 이탈리아 라이뉴스24와 화상 인터뷰를 하며 "한국 정부는 바이러스를 잘 차단했다"고 평했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선을

공개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검사를 진행하는 투명하고도 꼼꼼한 대응 시스템을 지켜세우는 한편,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많은 인원의 감염 여부를 효율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손미나 작가는 스페인 인기 프로그램 '국민의 거울'에 화상 연결로 출연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잘 잡을 수 있었다"며 적극적인 확진자 동선 확인과 전수조사, (빠른) 검사,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 등을 비결로 꼽았다.

이에 대해 현지 프로그램 진행자가 "스페인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다. 생활 습관이나 인권 문제를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자 손 작가는 "개인정보는 일체 유출이 안 된다"고 바로잡기도 했다.

스페인 프로그램 출연자들은 손미나 작가가 자세하게 전해주는 한국 정부와 시민들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듣고선 "한국은 시민의식과 전염병 방역에 있어 세계 최고의 모범국"이라고 극찬했다. 연합뉴스

7000회 맞이한 '6시 내고향' 고향 나들이로 따뜻한 위로

KBS 1TV 프로그램 '6시 내고향'이 30일 방송으로 7000회를 맞았다.

1991년 5월 20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올해로 29년 역사를 자랑한다. 근대화 이후 시골을 떠난 도시인들에게 고향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탄생했다.

이날 7000회 특집 방송은 오랜 세월 함께해준 시청자들에게 감사와 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에 빠진 농어촌 주민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내고향 상생 장터, 함께 살자'는 생산물을 폐기해야 할 처지에 놓인 농어민들에게 새 판로를 제공하고, '청년회장이 간다!'에선 손헌수, 이정용, 기성 앤더슨이 충남 서산의 어르신을 위해 활력과 감동을 선사했다.

최인선, 최형진 셰프와 김정은은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로 향해 코로나19로 일상을 빼앗긴 마을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연합뉴스



동명의 할리우드 영화를 리메이크한 일본영화 '첫키스만 50번째'의 한 장면. 연합뉴스

'할시' 5월 내한공연 코로나19 여파로 취소

오는 5월 열릴 예정이던 미국 싱어송라이터 할시(Halsey) 내한공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다.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30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해 예정된 5월 공연을 일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며 "공연장을 찾는 관객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공연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티켓은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된다. 환불 관련 세부 사항은 에스24 티켓과 라이브네이션코리아 홈페이지·SN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컬처리시' 때려고 내면을 솔직하게 담은 음악 등으로 사랑받는 할시는 방탄소년단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에 피쳐링해 한국에도 이름을 알렸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미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꽃길만 걸어요(재) 9:40 무한리플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KBS청소녀 특선다큐 르네상스의 거장들 11:50 날아라 숲들이 뉴비기닝(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나쁜 사람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딸 좀 보살래요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살맛 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당당맨 유치원 9:30 페파 피그 9:40 코로나19 특별 생방송 -EBS가 함께 합니다 12:00 EBS 정오뉴스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 15:10 꼬마버스 타요 15:55 꼬마해머로 슈퍼잭 16:10 피시 16:40 똥똥똥 친구들 18:0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 19:45 지이엔트 펠TV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KBS 청소년 특별기획 위기탈출 넘버원 스페셜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4:30 KBS 청소년 특별기획 온드림스쿨 스페셜 15:00 KBS교향악단 밀러 스페셜 15:05 생로병사의 비밀 1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동물의 왕국	13:00 KBS청소녀 특별기획 특선다큐 더 플래닛S 14:00 살림하는 여자들(재) 15:10 자동차부속상 위키2 15:30 TV 유치원 16:00 무한리플 샐러드(재) 17:00 동물학당 수디수철(재)	12:00 12 MBC 뉴스 12:20 빠샤 메카데S 12:50 뽀롱뽀롱 모두가 놀자 13:20 웰로즈 신비한 자연교실 2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나쁜 사람(재) 16:00 품미 오딧세이 17:00 5 MBC 뉴스 17:30 유먼 다크 사람이 좋다	12:00 SBS 12뉴스 12:20 JIBS 뉴스 12:50 TV 동물농장(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네오세로(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선택 2020 제주주의미래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토론회·제주시 갑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기타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5 김태형에게 김석훈입니다 12:00 CBS나눔통신 12:05 천왕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시사저널 집안문입니다 21:35 라디오강연 22:05 채선아의 가스펠이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보물섬 20:30 꽃길만 걸어요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역사저널 그날 22:55 더 라이브 23:35 KBS교향악단 밀러 23: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위험한 약속 20:30 글로벌24 20:55 날아라 숲들이 뉴비기닝 22:00 고림리플 스페셜 23:00 영화가 좋다(재)	18:30 사색의 공룡체 스미다 19:35 MBC 뉴스데스크 20:55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 21:30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 22:05 웃음주식회사 속임수다 23:00 PD수첩 23:55 그 남자의 기억법(재)	19:5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생활의 달인 21:40 아무도 모른다 22:20 아무도 모른다 23:00 불타는 청춘 1부 23:40 불타는 청춘 2부	7:00 KCTV 뉴스 9:30 헬렌지 퀴즈챌프 10:30 4.15총선 후보자 대담 11:00 KCTV 뉴스 11:40 문화캐피 13:10 UHD 특선 15:30 4.15총선 후보자 대담 16:00 헬렌지 퀴즈챌프 17:40 KCTV 시청자세상 18:00 방송콘텐츠 경연대회 '꿈을 그리다' 19:00 KCTV 뉴스7

오늘의 운세 31일

김홍상 지단(호미)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토록 노력하라. 48년 아랫사람과 의견 조율이 끝나는 명예와 직결된다. 60년 잘 알지 못하면 참견하는 것은 삼가라. 망신수와 구설이 따른다. 72년 일이 풀리지 않아도 중심이 흔들리면 좌불안석하게 된다. 84년 마음이 안정되고 의욕이 증가한다.

42년 의기투합하고 협력할 일이 생기면 이익이 있다. 공동투자 창업도 있다. 54년 서서히 회복되니 마음을 즐겁게 비워라. 66년 참고 기다리던 일에 기쁜 소식이 있다. 78년 친구 또는 동료와의 관계가 좋으나 자금이 지출되고 용돈은 궁하다. 90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 답답함이 가중된다.

37년 자식의 문제로 마음이 쓰이나 스스로 해결되니 크게 우려하지 마라. 49년 관청 승인이나 인허가건이 해결되거나 계약할 일이 발생. 61년 활동력이 늘어나고 자식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있다. 73년 친구의 선악이 깨지거나 관계가 서먹해진다. 85년 소개 또는 중매가 들어오나 반갑지 않다. 구설수 따른다.

43년 이웃이나 친구를 만나 외출을 하거나 모임에 참석한다. 55년 문서관련 재물이 있으니 잘살펴서 활동을 하라. 67년 열정이나 의욕이 강한 날. 활동성 있는 업은 이익이 증가된다. 79년 취업이나 직장문제에 호소식이 있다. 미혼자 이성교제 길. 91년 기록권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경합한다.

38년 사업에는 수익이 있고 몸이 바빠진다. 50년 부하직원과 공유하고 해결이 안되는 것은 말기면 해결된다. 62년 어려움이 친구나 동반자에게는 진전이 있고 희망이 보인다. 76년 자녀의 문제나 가정에서 불화가 조성되니 내일에 전념하라. 88년 상사나 지인의 추천 도움이 있거나 급전유인이 좋아진다.

44년 구설수로 모임이나 사석에서 한 말이 와전되니 언행에 신중. 56년 계약 매매 등에 관한 일이 생기고 수익이 생긴다. 68년 경쟁자 또는 상대자로 인해 피곤. 정면적은 일이 많아진다. 80년 부부간에 불화 갈등이 있고 이성간엔 교제가 진행될 수도 있다. 92년 과음을 삼가고 운전 또는 발걸 조심하라.

39년 가정사 문제로 형제 간에 논쟁이 생기니 나서지 말고 중립을 지켜라. 51년 문서에 관한 소식이 오거나 약속이 정해진다. 계약은 유리. 63년 친구 또는 대인 관계의 폭이 넓어진다. 75년 교육·예능분야 운이 풀리는데 뜻하는 일이 해결된다. 87년 새로운 교제나 이성간 다툼이 오니 오늘보다 내일 만나라.

45년 자기의사를 명쾌하고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용기. 57년 매마나 문서 계약건이 성사가 되나 자금력이 부족하다. 69년 동료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이성교제 소식이 찾아온다. 81년 지인의 도움이 유익하다. 93년 지인의 추천 도움이 있거나 급전유인이 좋아진다.

40년 의욕이 강하고 갈 곳이 많다. 활동 원만. 52년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저축 또는 미래설계도 필요하다고 느낀다. 64년 시험 자격 준비자에게는 진전이 있고 희망이 보인다. 76년 자녀의 문제나 가정에서 불화가 조성되니 내일에 전념하라. 88년 상사나 지인의 추천 도움이 있거나 급전유인이 좋아진다.

41년 아랫사람 또는 자녀로 인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득도 따른다. 53년 금수류, 주유업은 분주하며 이익이 있다. 65년 직장이나 지연되던 업무가 해결되고 일의 능률이 있다. 77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주변인을 너무 신뢰하지 마라. 89년 사고력이 증가하고 이해독심을 생각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748-7400